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 11.(목) 총 5매(본문4, 참고1)	
담당 부서	국토부 공항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나웅진, 사무관 천홍식/허나운, 주무관 권오준 • ☎ (044) 201-4328, 4337, 4333	
	국토부 민자철도팀	담 당 자	• 팀장 김태형, 사무관 염광은, 주무관 최정근 • ☎ (044) 201-3983, 3984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계획팀	담 당 자	• 팀장 조규혁, 차장 성기광 • ☎ (032) 741-5310, 5292	
보 도 일 시		2017년 1월 12일(금) 16: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4주 앞두고…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기념식 버스철도 연계 편의성 제고·오도착 종합방지대책 등 대국민 홍보 총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1월 18일로 예정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랜드 오픈(Grand Opening) 행사를 1월 12일 제2 여객터미널 출국층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약 4주 앞두고 “세계를 열다. 사람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어, 우리나라 중추공항인 인천공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된다.
-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대사관 등 주한사절단, 국회의원, 국내·외 공항관계자,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김연아, 송중기), 3단계 건설 유공자, 공항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 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된다.
- '17년 여객 6,208만 명, 화물 292만 톤을 운송한 인천공항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 제2 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공간 확대, 환승편의시설, 전망대, 상설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 안내로봇, 무인자동서비스(셀프체크인, 셀프수하물 위탁)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적용되었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 도입 등으로 항공보안도 강화되었다.
-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간에는 1월 13일부터 5분 간격으로 직통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여객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계획이다.
- 특히, 제2 여객터미널은 버스와 철도가 통합된 제2 교통센터를 통해 대중교통도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제2 교통센터과 제2 여객터미널 간 거리는 59m로, 철도역과 여객터미널 간 223m 떨어진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공항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졌다.
 - 1월 13일부터 공항철도(전동차)와 케이티엑스(KTX)가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 현재 운행 중인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약 8분(정차시간 포함)이 소요되며, 서울역에서 51분(공항철도 직통 열차 이용 시)이면 “인천공항2터미널”역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 공항철도 소요시간 >

- 서울역~인천공항1터미널역: 공항철도(일반) 58분, 공항철도(직통) 43분, KTX 43분
- 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역: 공항철도(일반) 66분, 공항철도(직통) 51분, KTX 52분

- 1월 15일부터는 일반·리무진 버스도 현재 제1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제2 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며, 기존 운행 편수보다 101회 증가된 일일 2,658회를 운행한다.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오는 1월 18일 성공적인 개장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이 오픈하는 1월 30일 이후 현지 적응을 위하여 조기 입국하는 선수단(약 95개국, 3만 명)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중추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평창올림픽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선수단, 대회 관계자, 방문객은 인천공항으로 입국 뒤 양양공항으로 향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나 강릉으로 가는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평창에 도착할 수 있다.
- 1월 18일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그동안 7차례의 종합시운전을 거치면서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태로, 인력배치 및 훈련, 시설 및 시스템 점검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 개장 당일(1월 18일)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 훈련,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정화, 상업시설 입점준비 등 막바지 운영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2개의 터미널 분리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의 혼선과 오도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 안내계획 수립 및 시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더 많은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허브공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 “2017년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하는 등 점점 높아지는 항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오는 1월 18일 제2 여객터미널의 개장은 인천공항이 또 한 번 최고의 공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개장과 동시에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하여 중추 공항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천홍식 사무관(☎ 044-201-4337), 민자철도팀 영광은 사무관(☎ 044-201-3983), 인천국제공항공사 조규혁 팀장(☎ 032-741-53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참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시설 소개



출국층 중앙 자동화서비스전용구역에 있는 자동수하물위탁 기기. T2에는 자동탑승권발권 기기 66대, 자동수하물위탁 기기 34대, 자동출입국심사대 52대가 설치되어 있다.



제2교통센터 실내 버스매표소. 버스매표소가 실외에 있던 1터미널과 달리 2터미널은 실내에 버스·철도 통합 대합실을 조성하여 편의를 개선했다.



2터미널의 신형 원형보안검색기(총 24대). 아바타 형태의 이미지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했고, 초고주파 방식으로 인체에 무해하다.



면세구역 내 노드지역. 대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해 여객에게 편안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2터미널 곳곳에는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여유롭게 공항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구역에 설치된 자비에 베이앙의 작품.



어린이 놀이시설(6개소)과 유아휴게실(10개소)을 통해 유아 및 어린이 동반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일반구역 5층에 위치한 홍보전망대(*조감도)에서는 활주로나 항공기를 조망할 수 있다.



환승객을 위한 다양한 환승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Digital Gym(*조감도)에서는 재미있는 운동을 즐기며 비행의 피로를 날릴 수 있다.